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

Empirical study on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of university students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전공

교수 송 순**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박 효 인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Song, Soon

College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Lecturer Park, Hyo-i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with conflict & satisfac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le(97), female (131) university students in Cheonbuk area and analyzed with the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regression in use of SPSS WIN 11.5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university male students on functional separation whil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female students on emotional separation from their father.
2. Age of 18th-19th is a diverging poin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the male student are grow late than the femal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their mother.
3. The male students'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affect more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 본 연구는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송 순 (E-mail: ss6653@hanmail.net)

from their father than the female students' do.

주요어(Key Words) :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대학생(University Student)

I. 서 론

청년기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 후기의 개인적 적응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서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다. 유아기에 일어나는 첫 번째 심리적 독립이 어머니로부터 신체적으로 분리 독립된 존재라는 감각을 터득하는 시기라면 청소년 후기에 일어나는 두 번째 독립은 심리적 분리와 개별화로서 인간의 자아발달에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Blos, 1979). 유아기 독립은 유아와 어머니간의 격렬한 정서적 관계의 맥락에서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면서 유아의 자아경계선이 뚜렷해지며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점차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Mahler, Pine, & Bergman, 1975). 아동기 동안 부모-아동 관계 특성이 내면화되고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의 발달과 더불어 청소년기 심리발달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된다(홍강의, 1984). 즉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의 부모상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규칙에 복종하고 그들 자신과 부모와 관계를 독립된 개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한다. 부모자녀관계의 재 정의는 아동기 정체성을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독립성에 대해 양가적 감정이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를 갈등적으로 보이게 하고(Kroger, 1985)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조화와 애착보다는 갈등과 분리가 정상적인 가족생활의 특징인 것처럼 자리한다(Steinberg, 1990).

대학생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이루어 내야할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서 대학에서 성공적인 학업 성취와 관련되며(Teyber, 1983) 이러한 심리적 독립이 일어나는 과정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Paris, 1976) 매우 독특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자아는 부모로부터 빌린 자아로서 남게 된다(Blos, 1979). 그러나 분리와 개별화는 동시에 평행해서 발생하는 과정이고 분리효과는 부모지지와 관련되고 개별화 효과는 정체성과 관련되며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지지는 감소하고 부모지지의 감소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덜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심리적 분리 효과라고 한다

(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분리 효과는 정서적 적응과 관련되며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개인적 적응에 관계하는 중요한 문제로 관측되어왔다(Bloom, 1980).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의 불안정은 자기도취적 증상(Lapsley & Rice, 1988), 경계선적 인격장애(Noam, 1988), 과식증(Bruch, 1985; Friedlander & Siegel, 1990), 자살관념(Wade, 1987) 등을 초래하며 우울, 불안, 대인관계문제, 약물, 학업문제 등으로 적응을 방해하게 된다(Hoffman & Weiss, 1987). 청년기 낮은 심리적 자아분화수준은 사회관계와 가족관계 기능을 낮게 하고 대처기제가 발달되지 못하여(이수진, 김명자, 2000) 건강한 가정 형성에 방해가 된다.

청년기 부모와 자녀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청소년들을 잡아두고 싶어 하는 부모들의 욕심으로 인해 부모와 힘의 줄다리기를 하게 되며 의존하고 싶은 욕구와 독립하고 싶은 욕구,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겹치게 되는 격동의 시기를 거침으로서 부모와 별개의 '내가 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를 완성한다. 홍강의(1984)는 이 제2의 분리-개별화의 연령범위를 13~18세로 제시하고 있으며 배제현(1993)은 연령범위를 13~22세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또는 문화에 따라 집을 떠나는 시기가 차이가 나서 미국의 청년들은 18~19세경(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9)에 집을 떠나고 독일 등 서구 사회의 청소년은 남성은 23세 여성은 21세경에 집을 떠나게 된다(Silbereisen, Meschke, & Schwarz, 1996). 부모의 집을 떠난 후 청년들은 더 많은 친밀감과 아주 적은 량의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O'Conner et al., 1996; Shaver, Furman & Buhrmester, 1985; Sullivan, 1980). 부모 집을 떠난 청년이 집에 남아있는 청년보다 부모와 더 잘 지내며 13~21세 청년 연구에서 부모 집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청년이 부모와 친밀감이 높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Dubas & Petersen, 1996). 청년들은 집을 떠나는 즉시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함으로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할 수 없었던 부모와 상호작용의 빈도와 시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며 더 많은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성인초기 청년들은 자율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그들의 부모와 관계에서 친밀감을 더 느끼게 된다(O'Conner et al., 1996).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에 신체적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서구사회 청년들의 결과이며 장기간의 교육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사회의 대학생은 부모와 관계가 어떠한 경향을 보일 것인지 궁금하게 한다.

부모와 심리적 독립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관계의 맥락에서 발달하게 되며 어머니-유아 한 쌍의 일체성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원초적인 영역에서 신경증적인 갈등과 만족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신분석학의 이론은 기술한다. 이는 대부분 아동의 성공적인 외디프스 콤플렉스의 해결에 의존하는 생각들이며(Kline, 197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청년기 자녀는 동성부모와 이성부모에 대한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양상이 다를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소수의 연구가 있으며 부모와 청년기 자녀 관계가 성별에 따라 갈등과 애착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부모와의 갈등이 더 많고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애착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조윤주, 2002)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는 청년기 대학생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와 독립과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Hoffman(1984)은 청소년 후기의 심리적 독립을 기능, 정서, 태도, 갈등적 독립이란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한 후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인 심리적 독립검사(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Hoffma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갈등적인 독립과 사랑하고 일하는 면의 적응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특히 남, 여 청소년 모두에게서 양친으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과 학문적인 적응은 관계가 있었고, 갈등적인 독립은 보다 나은 사랑관계의 형성에 관련되어 있었다. 여자는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사랑관계의 형성에, 남자는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인 독립이 학문적인 적응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Hoffman의 가설과는 달리 양친으로부터의 태도적 독립과 남여 모두의 개인적인 적응 간에는 유의한 역상관이 발견되었고, 태도적 독립과 남자들의 사랑관계의 형성 간에도 역상관이 나타났다. Hoffman은 태도적인 유사성이 그의 이론처럼 인지적인 분화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가치에 대한 건강한 내면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형태는 그들이 교차 성의 관계일 때(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들의 부모로부터 개인들의 심리적 독립의 정상적 과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각한 심리적 불안이나 부적응에 관련되기도 한다(Hoffman, 1984). Hoffman의 척도를 이용한 한국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한미선(1987)의 연구에서 한국대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성차에 따라 유의미함이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기능적, 정서적, 갈등적, 태도적 측면에서 더 독립적이었다. 위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은 적응과 부적상관이 있고 태도적 독립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남자 대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11.4%)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17.9%)이 컸으며 특히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적응과 관련성이 높았다. 여자 대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15.8%)보다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17.1%)이 컸으며 갈등적 독립이 적응과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한미선, 1987).

지금까지 연구에서 Hoffman의 네 가지 심리적 독립의 하위 영역은 각기 적용에 서로 다르게 연결되며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관계가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관계가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관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와 심리적 독립은 남녀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 관계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의 특성이 남대생과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에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남녀 대학생의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와 관계가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의 교차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은 어떠한가?
2. 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은 어떠한가?
3.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1. 남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2. 여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자료

자료 수집은 2003년 12월 4일~13일 전북지역 W 대학 학생 200명과 K대학생 1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264부(88%) 수거하고 부실 기재한 35부를 제외한 228부(76%)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97명(42.4%), 여학생 131명(57.2%)이다. 연령은 연령과 학년으로 조사했다. 부모님 연령과 직업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했으며 이를 아래 표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부모 직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전문 관리기술 직은 전문직(의사, 변호사, 법조인, 교수, 연구인, 언론인, 방송인, 작가, 예술인)과 관리직(기업체 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장), 전문기술직 (엔지니어, 건축가, 교사)을 합한 수이다. 판

매서비스는 요식, 숙박, 운전기사, 소규모점원, 외판원, 가게주인, 식당, 행상, 노동이며 생산직은 숙련공, 기능공, 작업반장, 농업이다. 사무직은 회사원, 은행, 공무원, 사회단체직원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9명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97(42.6)	연령	18-19	73(32.0)
	여학생	131(57.4)		20-21	77(33.8)
학년	1학년	77(33.7)		22-23	41(18.0)
	2학년	44(19.3)		24이상	37(16.2)
	3학년	72(31.5)	종교	기독교	70(33.0)
	4학년	35(15.5)		불교	26(12.3)
형제 수	외동	6(2.3)		천주교	26(12.3)
	2명	112(50.0)		없다	90(42.4)
	3명	62(27.3)	출생순위	첫째	95(42.4)
	4명이상	44(20.4)		둘째	75(33.5)
친한 친구	1-2명	51(22.4)		셋째	31(13.8)
	3-4명	96(42.5)		넷째이상	23(10.3)
	5-6명	49(21.7)	용돈 빌릴 친구	1-2명	63(28.4)
	7명이상	30(13.4)		3-4명	100(45.0)
이성친구	없다	73(32.4)		5-6명	35(15.8)
	있다	135(60.0)		7명이상	24(10.8)
	최근 헤어짐	17(7.6)	가족형태	핵가족(양친)	166(78.7)
아버지연령	40~49	62(27.9)		한 부모	16(7.6)
	50~55	105(45.9)		확대가족	29(13.7)
	56~67	44(19.2)	어머니연령	40~49	135(64.9)
아버지학력	중졸이하	42(19.5)		50~55	56(26.9)
	고졸	126(58.5)		56~64	17(8.2)
	전문대이상	38(17.6)	어머니학력	중졸이하	72(33.8)
	대학원이상	10(4.4)		고졸	121(56.8)
아버지직업	없음	10(4.9)		전문대이상	16(7.5)
	전문관리기술직	71(34.8)		대학원이상	4(1.9)
	판매서비스	39(19.1)	어머니직업	없음	116(57.1)
	생산직	43(21.1)		전문관리기술직	20(9.9)
	사무직	41(20.0)		판매서비스	28(13.8)
가계소득	150만 미만	33(15.9)		생산직	24(11.8)
	150-250만	100(48.1)		사무직	15(7.4)
	250-350만	56(26.9)	주관적가정경제의 수준	하	14(6.5)
	350만 이상	19(9.1)		중하	63(29.0)
가계소득	중	117(53.9)		중상이상	18(8.3)
	잘 모르겠음	5(2.3)		잘 모르겠음	5(2.3)

*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므로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척도

1) 심리적 독립 수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독립척도 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한미선(1987)이 사용한 척도와 맹영임(2001)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문항을 선택하였다. 심리적 독립은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을 포함하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실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 태도적 독립은 부모와 다른 독특한 스스로의 이미지와 자기 자신만의 신념, 가치,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정서적 독립은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 등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를 묻는 문항은 각기 55문항씩이며 문항수와 문항에 대한 신뢰도값 (Cronbach's α)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관계 기능적 독립 13문항(.84), 태도적 독립 13문항(.85), 정서적 독립 10문항(.84), 갈등적 독립 19문항(.77), 어머니와의 관계 기능적 독립 13문항(.79), 태도적 독립 13문항(.79), 정서적 독립 10문항(.73), 갈등적 독립 19문항(.77)이며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상관계수)는 .30미만으로 척도의 문항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2) 부모와의 관계

변경애·김순옥(2001)의 척도 중에서 자녀의 모자관계만족에 관한 7문항과 대학생 자녀와 애착 갈등을 조사한 조윤주(2002)가 사용한 척도 중 부모갈등을 가장 잘 표현하는 8문항을 선택하였다. 만족에 대한 문항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 만족, 도움, 자랑스러움, 의견존중, 전반적인 만족 등이며 갈등에 대한 문항은 관계의 소원함, 의견 대립, 예상되는 갈등, 성격 문제, 지나친 기대나 간섭 등과 '전반적으로 갈등이 많은 편이다.' 등이다. 갈등에 관한 문항은 역코딩 하였으며 아버지와 관계 신뢰도값 Cronbach's α =.90, 어머니와 관계 Cronbach's α = .88이며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상관계수)가 .50 미만으로 문항간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 11.5 버전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와 %, 평균값,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계산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Levene의 등분산값을 구하였으며, 둘째, 연령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부모관계(만족 갈등)와 심리적 분리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체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관계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Bivariate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 (r)를 구하였다. 또한 부모와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차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Levene의 등분산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학생들의 부모와 관계는 평균값으로 보아 아버지와 관계보다 어머니와 만족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아버지와 관계만족의 표준편차로 보아 여학생의 아버지와 관계만족의 정도는 개인적 편차가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와 관계에서 남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생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전체에 대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립의 하위영역에서 어머니에 대한 독립의 하위 영역들은 남녀 대학생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와 관계에서 기능적 독립($t=4.44, p<.05$)과 정서적 독립($t=11.53, p<.001$)이 남녀 대학생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서 남학생은 기능적 독립의

평균이 높고 여학생은 정서적 독립의 평균이 높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

N=228명

변인	성별(N)	M(SD)	t값	유의확률	
어머니관계	남 95명	3.65 (.57)	.04	.847	
	여 126명	3.72 (.59)			
아버지관계	남 97명	3.38 (.61)	.80	.371	
	여 128명	3.36 (.72)			
어 머 니	기능적독립	남 97명	2.72 (.54)	.26	.610
		여 131명	3.00 (.51)		
	태도적독립	남 97명	2.93 (.52)	.65	.201
		여 131명	3.12 (.51)		
	정서적독립	남 97명	3.19 (.50)	.35	.553
		여 131명	3.48 (.51)		
	갈등적독립	남 97명	2.74 (.48)	.08	.781
		여 131명	2.69 (.51)		
	전체	남 97명	2.86 (.36)	.07	.795
		여 131명	3.01 (.34)		
아 버 지	기능적독립	남 97명	2.71 (.55)	4.44*	.036
		여 131명	2.68 (.68)		
	태도적독립	남 97명	2.90 (.58)	.00	.959
		여 131명	2.79 (.60)		
	정서적독립	남 97명	2.93 (.52)	11.53***	.001
		여 131명	3.05 (.76)		
	갈등적독립	남 97명	2.81 (.60)	1.58	.211
		여 131명	2.80 (.47)		
	전체	남 97명	2.83 (.43)	.07	.453
		여 131명	2.82 (.42)		

*p<.05, ***p<.001

2. 연령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차이

연령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Duncan's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연령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부모관계는 남학생의 어머니와 관계에서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전체 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어머니와의 기능적 독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에 대해 여자 대학생이 기능적 독립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18~19세인 집단(F=3.01, p<.05)의 평균값이 높았고 나이가 어린 집단의 순으로 기능적 독립의 평균이 높았다. 어머니와 관계에서 남자 대학생은 갈등적 독립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18~19세인 집단(F=4.66, p<.001)의 갈등적 독립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와 관계와 심리적 독립은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3> 연령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 관계와 심리적 독립

N=228명

		전체학생(228)		남학생(97)		여학생(131)		
		평균(SD)	F값	평균(SD)	F값	평균(SD)	F값	
어머니관계	18-19	3.65(.59)	.78	3.52(.55)a	3.42*	3.77(.61)	.20	
	20-21	3.67(.59)		3.54(.57)ab		3.72(.59)		
	22이상	3.76(.56)		3.83(.56)b		3.68(.56)		
아버지관계	18-19	3.33(.72)	.83	3.32(.66)	.69	3.33(.78)	.24	
	20-21	3.33(.70)		3.31(.68)		3.34(.71)		
	22이상	3.45(.56)		3.47(.52)		3.34(.68)		
어 머 니	기능적 독립	18-19	3.52*	2.81(.59)	.70	3.19(.51)a	3.01*	
		20-21		2.92(.56)ab		2.73(.51)		2.99(.56)ab
		22이상		2.76(.52)b		2.66(.49)		2.89(.53)b
	태도적 독립	18-19	.69	2.88(.50)	.48	3.15(.44)	.00	
		20-21		3.11(.52)		3.02(.48)		3.14(.54)
		22이상		3.04(.52)		2.95(.54)		3.14(.48)
	정서적 독립	18-19	.09	3.27(.50)	2.30	3.52(.52)	.07	
		20-21		3.38(.53)		3.00(.45)		3.51(.50)
		22이상		3.36(.51)		3.26(.52)		3.48(.49)
	갈등적 독립	18-19	2.06	2.96(.52)b	4.66***	2.70(.58)	.51	
		20-21		2.66(.46)		2.68(.34)a		2.66(.49)
		22이상		2.70(.46)		2.65(.45)a		2.77(.47)
	전체	18-19	1.62	2.38(.31)	.99	2.51(.27)	.54	
		20-21		2.96(.32)		2.29(.26)		2.46(.27)
		22이상		2.92(.34)		2.30(.27)		2.46(.27)
아 버 지	기능적 독립	18-19	.06	2.71(.48)	.49	2.77(.56)	.26	
		20-21		2.71(.69)		2.83(.47)		2.67(.75)
		22이상		2.70(.63)		2.69(.63)		2.72(.64)
	태도적 독립	18-19	1.26	2.92(.67)	.01	2.88(.54)	1.55	
		20-21		2.78(.59)		2.94(.52)		2.73(.61)
		22이상		2.92(.52)		2.92(.52)		2.93(.53)
	정서적 독립	18-19	.29	2.96(.50)	.11	3.09(.64)	.45	
		20-21		2.99(.81)		2.94(.58)		3.01(.88)
		22이상		3.07(.53)		3.00(.44)		3.17(.61)
	갈등적 독립	18-19	1.11	2.89(.63)	.83	2.86(.53)	.33	
		20-21		2.81(.40)		2.96(.73)		2.79(.40)
		22이상		2.77(.48)		2.85(.42)		2.79(.47)

아버지	전체	18-19	2.88(.39)	.59	2.30(.35)	.13	2.32(.30)	.85
		20-21	2.81(.39)		2.31(.28)		2.24(.38)	
		22이상	2.85(.40)		2.27(.31)		2.32(.35)	

*p<.05, ***p<.001

3. 대학생의 부모와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전체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Bivariate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와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수 간 차이를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특히 회귀분석의 의도는 부모 각각에 대한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과 모관계가 부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과 부관계가 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의 교차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표 5>의 β 값은 방정식 II에서 계산된 값들이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어머니와 관계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은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와 관계와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는 갈등적 독립이 유의미하였다.

아버지와 관계와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상관이 없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관계 아버지와 관계를 순차적으로 회귀방정식에 투입하였다.

어머니와 관계와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은 갈등적 독립($R^2=.41$)과 정서적 독립 ($R^2=.133$)이 설명력이 높으며,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은 관계가 만족할수록 독립의 수준이 높아지는 정적관계이었으나 갈등적 독립은 관계가 나쁠수록 갈등적 독립을 하게 되는 부적 관계이었다. 아버지와 관계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교차관계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두루 관련이 있으며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은 관계가 만족할수록 독립의 수준이 높아지는 정적 관계이었으며 관계가 나쁠수록 갈등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었다.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관계의 영향은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 부적으로 유의미하여 어

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와 기능적 정서적 독립의 수준이 높아지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부모와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전체학생)

N=228명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체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체
어머니관계	.154*	.281***	.364***	-.641***	-.064	-.012	.106	.043	-.224***	-.054
아버지관계	.074	.056	.113	-.116	.010	.388***	.414***	.590***	-.506***	.223***

*p<.05(2-tailed), ***p<.001(2-tailed)

<표 5> 부모와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전체학생)

N=228명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관계	.126	(.149*)	.216	(.283***)	.214	(.361***)	-.726	(-.663***)	-.17	(-.08)
아버지관계	.010	(.014)	-.006	(-.009)	.007	(.013)	.070	(.074)	.08	(.04)
모형 I F	5.081*		18.595***		33.447***		152.140***		.919	
모형 II F	2.547		9.264***		16.668***		77.275***		.626	
모형1 R ²	.023		.079		.133		.411		.004	
모형2 R ²	.024		.079		.133		.416		.006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아버지관계	.335	(.418***)	.312	(.404***)	.410	(.623***)	-.494	(-.489***)	.562	(.242***)
어머니관계	-.125	(-.135*)	-.015	(-.017)	-.107	(-.142*)	-.089	(-.076)	-.335	(-.126)
모형 I F	36.021***		41.251***		110.764***		77.499***		9.472**	
모형 II F	20.424***		20.569***		59.747***		39.638***		6.432**	
모형1 R ²	.142		.159		.337		.262		.042	
모형2 R ²	.158		.159		.355		.268		.056	

*p<.05, **p<.01, ***p<.001

1) 남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남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의 하위요인간의 단순상관 관계는 <표 6>과 같고 남자 대학생의 부모와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남자 대학생의 어머니와 관계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갈등적

독립이 유의미한 관계이었다. 어머니와 관계와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교차관계는 기능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남자대학생의 아버지와 관계와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는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유의미하였다. 아버지와 관계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교차관계는 갈등적 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남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남학생의 어머니와 관계 아버지와 관계를 순차적으로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결과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와 관계가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등적 관계가 42%의 설명력이 있으며 아버지와 관계를 투입했을 때 설명력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즉 어머니와 관계에 아버지와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태도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이 유의미하였으며 관계가 만족할수록 태도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을 하게 되고 관계가 나쁠수록 갈등적 독립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으며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에 영향이 있었다. 아버지와 관계가 기능적 독립에 대한 설명력은 1%로서 미미하지만 어머니와 관계의 설명력은 7% 정도로서 그 수치가 주는 의미는 아버지와 기능적 독립에 어머니와 관계가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와 기능적 독립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에 어머니와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으며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이 높아지며 증가량으로 볼 때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어머니와 관계가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어머니와 관계의 영향력이 강함을 볼 수 있다.

<표 6>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남학생)

N=97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체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체
어머니관계	-.111	.173	.160	-.648***	-.243*	-.207*	-.044	-.096	-.399***	-.292**
아버지관계	-.031	.016	.122	-.248*	-.091	.097	-.199	.408***	-.523***	-.068

*p<.05(2-tailed), **p<.01(2-tailed), ***p<.001(2-tailed)

<표 7>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N=97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관계	-.007(-.116)		.011 (.019)		.007 (.130)		-.036(-.641***)		-.005(-.143)	
아버지관계	.001(.013)		-.003(-.047)		.005 (.084)		-.001 (-.019)		.000(.011)	
모형 I F	1.159		2.855		2.459		67.179***		1.847	
모형 II F	.581		1.505		1.517		33.269***		.918	
모형1 R ²	.012		.030		.026		.419		.019	
모형2 R ²	.012		.032		.032		.420		.020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아버지관계	.012 (.202)		.016 (.253*)		.029 (.510***)		-.028(-.434***)		.006 (.157)	
어머니관계	-.018(-.280*)		-.009(-.136)		-.017(-.281**)		-.017(-.241**)		-.012(-.309**)	
모형 I F	.940		4.011*		18.579***		34.820***		.189	
모형 II F	3.896*		2.798		14.152***		21.939***		4.275**	
모형1 R ²	.010		.041		.167		.272		.002	
모형2 R ²	.078		.057		.235		.323		.085	

*p<.05, **p<.01, ***p<.001

2) 여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여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8>과 같다. 여자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영향은 <표 9>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여자대학생의 어머니와 관계는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유의미하였으며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과 유의미한 관계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아버지와 관계와는 유의미한 상관 없이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중 태도적 독립에 어머니와 관계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는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향력이 있으며 아버지 관계를 투입했을 때 설명력 R²의 증가량은 미미하였다.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은 아버지와 관계가 설명하는 바가 크며 어머니와 관계를 투입했을 때 설명력의 증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여대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어머니와 관계가 만족할수록 영향력이 크을 알 수 있고 심리적 독립의 각 하위영역별로는 어머니와 관계만족이 클수록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이 긍정적이며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갈등적 독립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8>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 하위요인간의 관계(여학생)

N=131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체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전체
어머니관계	.321***	.356***	.505***	-.633***	.055	.113	.227***	.111	-.058	.132
아버지관계	.104	.085	.121	-.036	.085	.543***	.548***	.683***	-.511***	.417***

***p<.001(2-tailed)

<표 9>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

N=131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관계	.020	(.311***)	.020	(.350***)	.029	(.510***)	-.039	(-.638***)	.006	(.183*)
아버지관계	.002	(.036)	.001	(.023)	.000	(-.009)	.006	(.129)	.002	(.066)
모형 I F	14.000***		17.685***		42.217***		82.081***		5.119*	
모형 II F	7.035***		8.810***		20.945***		43.395***		2.803	
모형1 R ²	.103		.127		.257		.402		.040	
모형2 R ²	.104		.127		.257		.418		.044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부모와 관계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전 체	
	B	β	B	β	B	β	B	β	B	β
아버지관계	.034	(.541***)	.028	(.504***)	.048	(.691***)	-.024	(-.543***)	.017	(.493***)
어머니관계	-.002	(-.024)	.006	(.093)	-.000	(-.066)	.005	(.085)	.001	(.017)
모형 I F	48.874***		47.318***		101.348***		45.268***		40.127***	
모형 II F	24.301***		24.408***		51.076***		23.223***		19.928***	
모형1 R ²	.286		.279		.454		.271		.248	
모형2 R ²	.287		.289		.458		.277		.248	

*p<.05, ***p.001

IV. 결론 및 논의

이상과 같이 남녀 대학생의 성별 연령에 따른 부모와 관계, 심리적 독립과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남학생 여학생 별로 조사 해보았다. 특징적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부모와 관계가 비교적 만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욱 만족하고 학생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관계가 더 만족한 편이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와 관계에서 남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관계만족도에 대해 성별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수진과 김명자(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모와 청년기 자녀관계가 성별에 따라 갈등·애착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며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보다 부모와 갈등이 많고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애착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는 갈등 척도에서 본 연구와 같은 척도를 사용한 조윤주(2002)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차이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전체에 대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리적독립의 하위영역에서 어머니로부터 심리적독립의 하위 영역들은 남녀 대학생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이 남녀 대학생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학생은 아버지와 기능적 독립이 여학생은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대생과 여대생이 아버지를 지각하는 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대학생은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성차에 따라 유의미함이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기능적, 정서적, 갈등적, 태도적 측면에서 더 독립적이었던 한미선(1987)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상반되는 결과이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인기 자녀의 부모와 관계가 아들-부·모, 딸-부·모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이다.

연령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머니와 관계에서 남학생이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연령이 많은 집단(22세 이상)이 적은 집단(18~19세)보다 관계만족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 1년생(18~19세)은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남아 있으며 이 시기는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의 분기점이라고 사료된다.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의 경향은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내용이 없지만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에서 남학생의 경우 갈등적 독립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18~19세)이 갈등적 독립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은 어머니와 기능적 독립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18~19세 집단이 기능적 독립의 평균값이 높았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어머니와 심리적 정서적 독립이 다소 낮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성 부모와 관계가 이성 부모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학생의 단순 상관의 결과에서는 어머니와 관계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은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과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와 관계와 아버지에게 대한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는 갈등적 독립이 관련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와 아버지에게 대한 심리적 독립은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에서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관련이 없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전체 대학생은 어머니와 관계가 만족할수록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의 수준이 높아지고 관계가 나쁠수록 갈등적 독립을 하였다. 아버지와 관계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교차관계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에게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두루 관련이 있으며 관계가 만족할수록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의 수준이 높고 관계가 나쁠수록 갈등적 독립에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교차관계의 영향은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와 기능적, 정서적 독립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와 관계는 어머니와 갈등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갈등적 독립을 하였다.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에게 대한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가 만족할수록 태도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을 하게 되고 관계가 나쁠수록 갈등적 독립을 하였다.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으며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즉 어머니와 관계는 아버지와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에 영향이 있었다.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와 기능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보다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기능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어머니와 관계가 나쁠수록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이 높아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어머니와 관계가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 어머니와 관계의 영향력이 강하였다.

여대생은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향력이 있으며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은 아버지와 관계가 설명하는 바가 크며 교차관계의 영향력이 남대생에 비해 크지 않았다. 여대생은 어머니와 관계가 만족할수록 심리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며 심리적 독립의 각 하위영역별로는 어머니와 관계가 만족할수록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이 긍정적이며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갈등적 독립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은 결론적으로 첫째,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남녀 대학생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대학 1학년은 부모와 심리적 정서적 독립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이 다소 늦은 것으

로 추측해볼 수 있다. 셋째, 부모와의 관계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에게 대한 심리적 독립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대생보다 남대생의 어머니와 관계가 어머니와 심리적 독립은 물론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대상자들은 아들의 경우 어머니와 관계가 아버지와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 논문과 같은 관점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들을 비교하는 일이 어려웠으며 심리적 독립과 관련이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의식의 수준에서 질문지를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의 정도를 측정된 것으로서 추후에는 부정 콤플렉스와 모성 콤플렉스를 분석하여 부모와의 독립의 정도를 연구해 본다면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더 꼼꼼한 시준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대 청년들은 여아에 비해 남아의 출생비율이 높은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심리학적 변인들과 관련해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과 이들의 부모와의 관계의 특성이 이들의 미래 가정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변경애, 김순옥(2001). 개신교 기혼 여성의 종교 활동이 가족원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33-49.
- 맹영임(2001).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제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 김명자(2000).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및 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85-98.
-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모 부양 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선(1987). 한국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홍강의(1984). 제2개별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정신의학보**, 8(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395-400.
- Arnett, J. J.(2001).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A cultural approach*. Prentice-Hall, Inc.
- Bloom, M. V.(1980). *Adolescent 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ardener Press. C. G. Jung. 9-1:396, 1980).
-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ruch, H.(1985). Four decades of eating disorders. In D. M. Garner & P. E. Garfinkel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for an orexia nervosa and bulimia*, 7-18. New York: Guilford.
- Dubas, J. S., & Petersen, A. C.(1996). Geographical distance from parents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 J. A. Graber & J. S. Dubas(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71, 3-19.
- Friedlander, M. L., & Siegel, S. M.(1990). Separation-individuation difficulties and cognitive-behavioral indicators of eating disorder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74-78.
- Goldscheider, F., & Goldscheider, C.(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Leaving and returning home*. Thousand Oaks, CA: Sage.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Hoffman, J. 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Kenny, M. E.(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enny, M. E., & Donaldson, G. A.(1991). Contribution of parental attachment and

-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97-486.
- Kline, P.(1972). *Fact and fantasy in Freudian theory*. London: Methuen.
- Kroger, J.(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New Zeal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33-147.
- Lapsley, D. K., & Rice, K.(1988).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108-129. New York: Springer.
- Lapsley, D. K., & Rice, K., & Shadid G. E.(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86-294.
- Laurson, B., & Collins, W.(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197-209.
- Levine, J. B., Green, C. J., Millon, T.(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1), 123-137.
- Lopez, F. G., Campbell, V. L., C. Edward Watkins, Jr.(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02-409.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eeus, W., Iedema, J. Maassen, G., & Engels, R.(2005). Separation-individuation revisited: on the interplay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 identity and emotion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8, 89-106.
- Noam, G.(1988). The theory of biography and transformation: The clinical developmental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self.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3-29. New York: Springer.
- O'Connor et al.(1996).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and leaving home young adulthood.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71, 39-52.
- Paris, J.(1976). The Oedipus complex: A critical re-examination.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21, 173-179.
- Shaver, P., Furman, W., & Buhrmester, D.(1985). Transition to college: Network chang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S, Duck &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Newbury Park, CA: Sage.
- Silbereisen, R. K., Meschke, L. L., & Schwarz, B.(1996). Leaving the parental home: Predictors for young adults raised in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71, 71-86.
- Steinberg, L.(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pp.255-276)*.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 Sullivan, K., & Sullivan, A.(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 Psychology*, 16(2), 93-99.
- Teyber, E.(1983). Effects of marital coalition on adolescent adjustment and emancipation from the famil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3), 299-304.
- Wade, N. L.(1987). Suicide as a resolution of separation-individuation among adolescent girls. *Adolescence*, 22, 166-167.